

대외주의

주간 동향분석 및 전망



정 무 수 석 실

2.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

① KBS 문제

-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해 여론은 비판론이 약간 우세하나 당장 대규모 반대시위로 옮겨지기는 어려운 상황임.
 - 다만, KBS 문제가 YTN 등과 연계되는 등 정치 쟁점화되고 장기화될 경우엔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
- 가능하다면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후임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관심을 분산시켜야 할 것임
 - KBS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방송 전문가로 조직 장악력이 있는 **非정파적 인사**를 물색
 - * 17일 여론조사 결과 **‘해임에 찬성’ 38.8%, ‘해임은 부당하다’ 51.2%**.
향후 KBS 사장은 어떤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 지 물어봤더니 **‘경험능력 있는 인물’ 10.1%, ‘방송개혁 추진할 수 있는 인물’ 18.7%, ‘정치적 중립성 지킬 수 있는 인물’ 69.1%**로 나타났음.
 - = 해임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, 후속 인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으로 봐야 함.
- 친정권 이미지가 강한 인사의 임명은 강한 반발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
 - 뉴라이트 재단 등 우파 시민단체들도 ‘김인규 카드’에 대해선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냄
 - * 김 특보를 발탁하면 **‘정연주 해임=대통령 측근 심기=방송장악 음모’** 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
- 새 사장 임명과 함께 **설득력 있는 KBS 정상화 방안**을 발표하되, 다양한 내부 개혁조치 등을 통해 KBS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함

② 공기업 선진화

-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추진 동력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임
 - 따라서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
 - 지난 6개월이 과거 정부의 잔재 청산작업으로써 잡음이 불가피했던 시기라면 '공기업 선진화'는 새 정부의 정체성과 성과를 드러내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임
- 현 단계에서는 여론전과 홍보전에 집중해야 할 것임.
 - * 보수층에 대해서는 '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'는 메시지를, 중도층에는 '공기업 선진화 없이는 대한민국 선진화는 없다'는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
- 무엇보다 공기업 선진화를 경제구조 합리화, 新성장동력 창출, 대한민국 선진화 등과 연결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
 - ⇒ 특히, 공기업 선진화로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.

③ 올림픽 관련

-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은 국민적 열기는 24일 폐막 이후에도 각 방송사의 올림픽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
 - 이러한 북경올림픽 효과로 인해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향후 올림픽 선수단 초청만찬 등으로 올림픽 성과와 국정운영 성과와의 이미지 일치가 필요함
 - 이러한 중간작업을 거친 후 추석 직전에 개최될 국민과의 대화 등을 추진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임